이안의 Media In Buddha ⑪ 미얀마 영화 〈법복〉



▶한줄요약
웨 라 아웅 감독의 〈법복〉은 이미 2016년에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의한 지금의 폭력적 탄압을 내다보고 경고한 영화다.

진정한 求道 의미를 묻다



웨 라 아웅 감독의 〈법복〉의 한 장면. 평화 시위에 대한 군부의 폭력적 진압을 피하기 위해 숨어든 집에서 이슬람 여인에게 보살핌을 받는 스님의 모습.

지난 2월 1일은 미얀마 신군부 쿠데타 2년 되는 날이었다. 지금까지도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지속되면서 폭력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는 확실히 군부가 장악했지만 국토의 35% 정도, 도시에 사는 인구는 95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한 미얀마 특성상 완전한 군부의 지배도, 완전한 쿠데타 진압도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지역 말고 나머지 산악이나 변방 지역에서는 군부와 민주진영 간 교전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간에 이미 심하게 사회 전체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여파로 환율 및 유가, 물가가 모두 두 배 이상 뛰게 되었고,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범죄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미얀마 국민들은 삶은 바닥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탄압을 피해 국경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늘어만 가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는 여권발급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한 민간인 수는 2950여명, 그리고 구금된 민간인은 1만38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숫자가 이 정도이고, 여전히 교전 중인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습과 탄압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실제 희생자는 발표된 숫자보다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지속적으로 중립외교정책을 표방해왔으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침공을 공식 지지하면서 현재 러시아로부터 군수 물자 및 석유와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군부 체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UN 및 국제사회가 보인 행동이라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핑계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수준 정도가 고작이었다.

사실 미얀마가 이토록 어려워진 것은 국제사회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전체 인구의 90%, 그러니까 열에 아홉은 불교도인 나라 미얀마는 국토면적이 대한민국의 6.5배로 매우 넓고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400만 명 정도이지만 국토의 불균형 발전으로 최빈국으로 지정된 나라다. 원래 가난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침략 때문에.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발전해 오던 불교국가 미얀마는 인도의 일개 주로 전락했다. 영국은 불교를 미얀마의 국교로 계속 인정할 것을 거부하면서 미얀마인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1937년 영국이 미얀마를 인도에서 분리시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일본에 점령당했으며, 1948년 초까지 다시 영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미얀마의 혹독한 현재는 근현대사 인류가 저지른 전쟁과 침략의 업이 쌓인 죄과인 것이다.

2년 전,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특별한 영화가 특별한 자리에서 상영됐다. 〈법복〉이라는 미얀마 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위원장들이 모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상영된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던 그 시기, 대부분의 영화제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전주국제영화제 역시 상영행사를 치르기는 했으나 일반 관객의 참여를 제한하고 관계자들만 모여 극장에서 무관중으로 상영하면서 일반 관객들 대상으로는 온라인 상영 플랫폼을 열어 어렵게 초청한 영화들을 소개했다. 이런 힘겨운 상황에서 미리 초청된 인사들과 보도 신청을 해서 사전에 명단에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모처럼 레드 카펫도 깔렸다. 그러나 전주국제영화제 들머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건 영화계 유력 인사나 스타가 아니라 '미얀마'였다.

2020년 전주국제영화제가 미얀마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정당한 저항을 지지하는 한국 영화계의 뜻을 모아 영화제 기간 중에 발표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현장을 찾은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연대에 대한 호소와 한국영화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피켓과 현수막에 새겨 들고 개막식이 열리는 소리문화의 전당 앞에 서있었다.

부산·전주국제영화제서 상영된 〈법복〉
미얀마 군부 폭력 진압에 피신한 승려
이슬람 복장 입어야 상황서 화두 던져
"현 미얀마서 불교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의 미얀마 민주화 위해 기도하자

눈을 마주치게 되면 마음도 마주치게 되는 법. 미얀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는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고 영화제를 시작하는 이상 한국영화계는 그저 연대 성명서 발표나 연명한 영화인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 이상의 무거운 책임감을 전주국제영화제라는 자리를 통해 함께 감당하고자 준비했다.

그 자리가 바로 개막 바로 다음날인 30일에 열린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기자회견이었다. 미리 연대 성명을 준비한 국제영화제 위원장들 가운데 소모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함께 했다. 국제영화제들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영화계 주요 단체는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와 같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민들의 무차별 학살을 규탄한다. 특히 사실을 알리려는 영화인들을 탄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군부는 지금까지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를 위한 바람을 끔찍하게 짓밟고 있다. 미얀마 시민은 군부 폭력과 살상 속에서 다양하고 창조적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으며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영화를 통해 대안적, 민주주의적 가치를 실현해 문화예술의 자율성 연대 기구를 만들겠다.'

선언문 낭독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의 미래가 밝다.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다. 한국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해줘서 고맙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앞으로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 나갈 미얀마 사람들의 입장을 전했다.

기자회견의 진짜 주인공은 '영화'였다. 바로 미얀마 영화 〈법복〉과 〈버마의 봄〉이 상영된 것이다. 〈법복〉은 극영화고 〈버마의 봄〉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18분짜리 극영화 〈법복〉은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된 적이 있고 5분짜리 다큐멘터리 〈버마의 봄〉은 누구나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공개된 최신 영상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명서와 인터뷰 사이사이 이 영화들을 보면서 뉴스로 보는 것보다 진한 미얀마의 현실을 아프게 느꼈다.

특히 웨 라 아웅 감독의 〈법복〉은 이미 2016년에 미얀마에서는 군부에 의한 지금의 폭력적 탄압을 내다보고 경고한 영화였다. 영화의 배경인 시기는 2007년, 가사를 두른 승려들이 앞장서고 시민들이 함께 행진하며 거리에 모여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한다. 이들은 군부 정권의 에너지 보급 감축에 항의하기 위해 나선 길이다. 아마도 시민들은 승려들이 나섰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도 있었으리라. 그리고 승려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그들을 에워싸고 함께 행진했으리라.

그런데 군대는, 군대를 앞세운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폭력으로 답한다. 최루탄을 쏘고 곤봉으로 후려치는 군인들에 쫓긴 승려와 시민들이 피 흘리며 흩어져 주변 집들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겁에 질린 사람들은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다. 이들을 따라온 군인들에게 하나둘 잡혀가는 다급한 상황에서 한 젊은 승려에게 한 집에서 문을 열어준다. 그런데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젊은 여자, 그것도 이슬람 복장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다. 서로 당황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잠시 갈등하던 젊은 집주인 여자가 승려를 집으로 들인다.

집에 들어갔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법복인 가사를 입고 있는 승려는 뒤쫓아와 집집마다 수색하는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바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순간 젊은 여성이 승려에게 이슬람 복장을 내주며 갈아입으라고 한다. 그러나 승려는 거부한다. 승려는 여성에게 당신도 자신의 종교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지 않느냐면서 법의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기에 벗을 수 없다고 거절한다. 그러자 여성이 단호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두건을 벗어 보인다.

곧 군인들이 그 집에도 들이닥치지만 옷을 갈아입은 승려는 무사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슬람 종교 행사에 참여하러 나갔던 여성의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승려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 이슬람 복장을 하고 나선 승려는 무사히 군인들의 검문을 벗어나 다시 법복으로 갈아입는다. 그러나 곧 통행금지로 군인들만 돌아다는 거리에서 한 군인에게 발각되고 눈이 마주친다. 법복은 옷인가, 존재인가, 믿음인가? 법복을 입은 승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현재 미얀마에서 불교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미얀마가 어떤 상황인지를 묻는다.

이슬람 옷을 벗어들고 법복으로 갈아입은 승려가 뚜벅뚜벅 돌아가는 밤길이 안전하기를, 그 안전함이 미얀마 국민들 모두에게 미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법복〉과 함께 상영된 〈버마의 봄〉을 영화제에 참석한 사람들 뿐 아니라 대중들 모두가 2년 전 약속한 지지와 연대를 잊지 말고 한 번씩 다시 찾아보기를, 오늘의 미얀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청한다.

〈영화평론가〉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